

광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전문 의료인 힘 모은다

'민·관 공동대책위' 출범...전국 자치단체 중 첫 전문인력 중심 상황 정보공유·대응전략 수립...의료지원 총괄반 별도 운영

광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전문 의료인 중심의 민·관 협업체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문 의료인을 광주시장과 같은 위치에 두는 등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방역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에도 기존 행정관료 중심의 방역 체계를 고수하면서, 방역·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광주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 환자 급증 등의 상황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

병원협회,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대한간호협회 광주시지회 등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용섭 시장, 양동훈 광주시사회장, 이삼용 광주시병원협회장 등 3명이다.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 유행 확산에 대비해 즉각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추이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출발식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국립안심병원 확대,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자치구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또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내에서 의료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민·관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원 총괄반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지원 총괄반에는 민간 전문 의료 인력이 역학전문 지원반, 의료기관 대응지원반 등으로 참여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동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만일의 사태에도 빈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인들도 광주시의 전문 의료인 중심 민·관 협의회 구성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광주의 한 의료인은 "코로나19 대처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현행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으로 의료계 현장의 목

소리가 방역 행정에 즉각 반영된다면, 집단감염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의료인은 "감염병이 확산하면 의료 전문가 집단은 과도할 정도의 대처를 주문하고, 행정관료 집단은 현 상태에서의 현실적 대응을 고수하는 등 두 집단 간의

견차가 크게 벌어져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광주시의 민·관 위원회 출범은 두 집단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약국서 마스크 5부제

1인당 2매...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은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도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가져가는 경우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

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에 국한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부상 같이 사는 대리구매 대상 어린이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신한 구매시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구매가능 요일은 대리구매 대상 어린이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다. 장애인인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후에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500원이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이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과도한 불안감 경계...손 자주 씻으세요"

의료계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10가지 발표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학회와 재난정신건강위원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른바 코로나19 심리방역 지침이다.

심리방역은 감염 위기상황에서 정신

건강서비스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지침은 크게 10가지로 구성돼 있다. 가장 먼저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계는 지침을 통해 '불안은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순간도 있다'며 "다만 과도한 불안은 예민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소진시켜 면역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

감염병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라는 조언도 내놨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끊임 없이 정보를 추구하게 되는데, 불확실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하

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게 의료계의 조언이다.

이외에도 ▲염오하는 마음 없애기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 알아차리기 ▲불확실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가족과 친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 유지하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아프고 취약한 이웃에 관심 갖기 ▲서로 응원해 주기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무부, 일본인 입국 3단계 차단...신규비자 심사 강화

이미 발급된 사증도 효력 정지

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9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은 3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공사의 승객 정보를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IPC)를 이용해 우선 입국을 차단한다.

일본 국민은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급할 때,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각각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된다.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일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출발시간 기준 9일 0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없이 사증면제가 정지된다.

사증 발급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를 자필로 쓰도록 해 발열·오한·두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9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역당국이 국내에 입국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은 신속히 입국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확진자 정보공유·공동 방역

정원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6일 광양시청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방역·정보 공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3개 시는 감염병 발생 대비 사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진 환자·의심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생활권이 밀집한 3개 시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 방역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 여수, 광양에서 각각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금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 매주 목요일 10:00~12:00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 예금주 :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지도교수 : 경영학박사 송용욱
- H. 010-9416-1200, T. 062)230-7700-2